

순간접착제 생산“정체”

급신장 예상 빛나가 ... 가격도 정체 시장확대 관건

DIY(Do It Yourself)추세에 따라 가정용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었던 순간접착제 시장이 각 기업간 경쟁은 심한 반면 수요는 답보상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순간접착제 시장은 총 60억원 정도로 그동안 대양화학과 한국 알테코가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92년12월 SKC가 새롭게 Sky Lock 이란 상품명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생산기업들과 외국 수입품들과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신장하리라고 예상했던 순간접착제 시장의 성장률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편 제품가격도 지난 88년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각 생산기업들과 수입상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전자, 가전제품, 정밀기기 등 각종 산업분야에서 조립용, 일반 가정용, 또는 외과수술용이나 치과용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순간접착제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Cyanoacrylate Adhesives)로서 금속,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나무 등을 비롯 여러 물질에 매우 좋은 접착력을 갖고 있는 접착제이다.

순간접착제의 가격은 20g 기준 700~13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지난 5~6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제조기업 및 수입기업들이 편법을 동원, 20g 기준에서 10~15% 정도 용량이 부족하게 해 실질적으로 가격인상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생산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 수입은 해마다 크게 늘어 92년은 총수입이 월 20톤에 20g 기준 7억원 규모로 수입신장률이 10년사이 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접착제시장 자체가 일본 등 외국 의존도가 심하고, 국내기업이 관련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도 수요자가 국산제품의 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풍조가 있어 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국내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화학저널 1993/11/8>